

해외 박물관 소장 한국 복식문화재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대학원생 윤은재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임영자

目 次

I. 서론	1. 보존과학의 정의, 보존환경 및 보관관리
II. 이론적 배경	2. 보존처리
III. 해외 박물관 소장 한국 복식문화재의 현황	V. 해외 박물관 소장 한국 복식 문화재의 제문제
1. 미국 지역의 한국 복식문화재	VI. 결 론
2. 유럽 지역의 한국 복식문화재	참고문헌
3. 아시아 지역의 한국 복식문화재	ABSTRACT
IV. 복식문화재의 보존과학	

I. 서론

문화재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따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어떤 나라든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재는 중요시되어 왔으며 국제 협력 주위에 입각하여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면서 더욱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서구와의 문화 교류가 뒤늦게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개화기와 일제시대라는 수난과 암흑기를 겪으면서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국내외에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한국 문화재를 소장한 해외박물관중에는 한국문화재에 대한 전

문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문화재에 관련기관 뿐 아니라 우리 학계에서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문화 특히, 한국복식에 대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활발한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박물관학을 공부하던 중 1992년 뉴와크박물관(Newark Museum)에서 인턴쉽을 하면서 동양부 수장고에 묻혀져 있던 우리 복식을 정리하고 고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데에 기인하였다. 그 복식들은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에서 발간한 「미국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뉴욕 지역으로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석사 논문¹⁾으로 발표한 바 있

1) Yun, Un-jae, "A Survey of Korean Costumes in Metropolitan Area Museum Collection and a Preliminary Study of Some Unexplored Aspects of Korean Costume", F.I.T.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2.

다. 이를 계기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소장된 우리 복식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해외 복식 박물관의 실태 및 보존환경과 보존처리법 등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병용하면서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에서 발간한 5권의 「해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²⁾와 외무부에서 집계한 해외 소장 한국문화재에 대한 자료 및 여러 문헌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 복식의 소장량 및 소재 파악을 하고자 하였으며 상기의 자료 외에도 몇몇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보다 종합적인 소장 현황을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문화재를 소장한 전체 55개 박물관중 한국복식을 소장한 박물관에 1991년부터

서신을 보내어 담당자와의 연락이 가능한 16군데 박물관들을 현지 조사하였다. 그 중 현지답사시 한국복식이 전시되어 있지 않거나 인터뷰가 불가능했던 3군데 박물관을 제외한 미국 지역 박물관 5개, 유럽 지역 4개와 아시아 지역 4개 등 총 13개 박물관을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복식 문화재의 정의, 전시 현황, 한국문화재의 유출 및 해외 소장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를 도표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 3 참조)

아래의 <표 1>은 본인이 1992년부터 현지 조사

<표 1> 복식 관련 박물관 현황³⁾

국가명	박물관명	내용	소재지	특징	한국소장
네덜란드	Rijksmuseum		암스텔담	복식 & 직물 컬렉션	(유)
	Rijksmuseum voor Volkenkunde		암스텔담	고고학 컬렉션	유
덴마크	National Museum		코펜하겐	아시아 컬렉션	(유)
	Brede Museum*		브레드	아시아 컬렉션	유
	Museum of Decorative Art*		코펜하겐	직물 컬렉션	무
독일	민속박물관		뮌헨	아시아 컬렉션	유
	Stadt*Museum*		뮌헨	패션 컬렉션	무
미국	Brooklyn Museum		브루클린	아시아 & 장식컬렉션	유
	Cloisters*		뉴욕	직물 컬렉션	(유)
	Museum of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뉴욕	전문박물관	유
	Metropolitan Museum of Art		뉴욕	복식연구소	유
	Newark Museum		뉴저지	아시아 컬렉션	유
	Peabody Essex Museum		피바디	아시아 컬렉션	유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워싱턴	아시아 컬렉션	유
Textile Museum*		워싱턴	전문박물관	유	
바티칸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직물 컬렉션	무
벨기에	Lace and Costume Museum*		브루셀	전문박물관	무
스페인	Museu Textil i d'Indumentaria*		바르셀로나	전문박물관	무
	Museu Meresde la Punta*		팬타	전문박물관	무

2)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미국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전 한국국제문화협회), 1989
 , 「유럽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1991
 , 「일본 소장 한국문화재-민예관련」,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1993
 , 「일본 소장 ② 한국문화재」,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1995
 , 「미국 소장 ② 한국문화재」,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1996

3)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본인의 현지 조사한 것을 정리한 것이며, “*” 표시는 문헌에 없던 것을 찾아낸 것이고, “&” 표시는 2개의 컬렉션에 따로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유”는 한국복식의 소장을 확인한 것이고, “(유)”는 문헌에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며, “무”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임.

영국	리드시립박물관 Museum of Costume* Victoria and Albert Museum 캠브리지대학 인류고고학 박물관	리드 바스 턴던 캠브리지	아시아 컬렉션 전문박물관 아시아 & 드레스컬렉션 아시아 컬렉션	유 무 유 유
오스트리아	Museum Fur Volkerkunde Historical Museum of the City*	비엔나 비엔나	아시아 컬렉션 전문박물관	유 무
이탈리아	Museo d'arte Anticaed*	밀라노	복식컬렉션	무
일본	Kyoto Costume Institute*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문화여자대학교 복식박물관* Tokyo National Museum	경도 오사카 동경 동경	전문연구소 아시아 컬렉션 아시아 컬렉션 아시아 컬렉션	무 유 유 유
중국	고궁박물관* 민족문화궁* 상해 임시 정부청사* 연변 조선족 박물관*	북경 북경 상해 연변	아시아 컬렉션 소수민족 컬렉션 전문박물관 아시아 컬렉션	무 유 유 유
프랑스	Musee des Arts de la Mode* Musee de la Mode et du Costume* Musee Historique des Tissus* Muse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파리 파리 리용 파리	전문박물관 전문박물관 전문박물관 아시아 컬렉션	무 무 무 유
한국	국립민속박물관* 세종대학교 박물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한국자수박물관*	서울 서울 서울 온양 서울	복식 컬렉션 복식 컬렉션 전문박물관 복식 컬렉션 전문박물관	유 유 유 유 유

<표 2> 한국 문화재의 전시현황⁴⁾

내용 지역	전 시 명	개 최 지	개 최 기 간	수량	한복 소장
미국	한국문화전	워싱턴 등 8개도시	57.12.14~59. 6	197	유
	한국 미술 5천년전	샌프란시스코 등 8개도시	79. 5. 1~81. 9.30	264	
	아시아 불상전	LA, 시카고, 뉴욕	84. 3. 1~85. 2.10	10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관 개관기념 특별전	샌프란시스코	90.11.26~91.12.20	172	
	한국 전통생활의 비	뉴욕	92. 4.14~92. 6.13	128	
	18세기 한국 미술전	뉴욕, 워싱턴, LA	93.10. 1~94. 8.28	143	
유럽	한국문화전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61. 3.23~62. 6.30	160	
	한국미술 5천년전	영국(런던)	84. 2.15~84. 5.13	334	
	한국미술 5천년전	독일(퀸른, 함부르크)	84. 6.14~85. 1.13	334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 한국실개관기념특별전	영국(런던)	92.11.28~94.11.27	2	
	한국의 자연·종교·도자기전	벨기에, 네덜란드	93. 3.25~93. 8.29	75	
	일본	Expo 70	동경	70. 2.15~70.10.30	
한국 미술 5천년전		동경, 경도, 후쿠오카	76. 2 ~76. 7.	348	
동양 고대 유리 유물전		동경	78. 2. 7~78. 3.12	20	
불교 미술 원류전		나라	78. 4.26~78. 6.21	24	
한·일 고대 문화교류전		오사카, 나고야, 큐슈	80. 4 ~80.11	700	
한국 고대문화전		동경, 나고야, 후쿠오카	83. 8. 2~83.12. 4	323	
한·일 소상 아스카 원류전		나라	85.10. 3~85.11.24	42	
조선 통신사전		동경	85.10.29~85.12. 1	12	
금동불특별전		동경	87. 3. 6~87. 4.30	2	
무기 및 갑주 특별전		경도	88.10. 4~88.11.23	31	
발굴된 고대의 명문있는 유물특별전		나라	89. 8.26~89. 9.24	19	
가야 유물 일본 순환전		동경, 경고, 북강	92. 6. 2~92.11.11	437	
아시아 문명교류전		후쿠오카	93.10. 9~93.11.14	51	
동양 도자기 명품전		애지	94. 7. 6~94. 8.28	14	
한·일 국교 정상화 30주년기념 특별기획전	동경	95.11.25~95.12.24	342		

4) 국립중앙박물관 연보(1990~1996년)와 현지 조사 및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며 대역전시 현황은 삽입하지 않았음

<표 3> 해외 소장 한국문화재 현황⁵⁾

국가명 출처	일	미	영	독	소	프	덴	중	오	체	폴	헝	벨	스	네	스	캐	비
	본	국	국	일	련	랑스	마크	국	스트리아	코	란드	가리	기에	웨덴	델란드	위스	나다	고
1982년 통계	3630	3460	570	800		10	#		#				#	#		#		
한국국제교류재단	4890	15480	7150	2861		110	1400		720						22			
Korea Times	31223	5763	7281	4057	2091	104	1406	1434	721	320	100			60				
1994년 집계	29637	14562	7189	5246	2560	1518	1470	1434	649	250	135	68	56	48	8	1	1	

한 복식 관련 박물관을 살펴본 것으로 서양 및 일본의 박물관에서는 자국의 복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복식류도 소장·전시하고 있었으며, 그 범위는 17세기부터 현대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패션의 중심지인 프랑스, 영국, 미국 및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박물관과 산업체와의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었다. 그 예로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및 미국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는 매년 수차례의 복식전 개최를 통해 디자이너들이 창작의 영감을 얻는다고 하므로 우리도 의류 관련 학과와 박물관의 유대 관계를 통해 미래의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창출하는 기틀을 다져야 하겠다.

<표 2>를 통해 볼때, 20세기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우수한 우리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기획전시가 세계 각국에서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식을 포함한 경우, 또는 복식만을 독립적으로 전시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을 통해 보면 일본이 가장 많은 양의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 우리 문화재를 직접 다루는 국립기메박물관 연구원인 안옥성씨에 의하면 “기메 박물관에만도 수천점의 우리 문화재가 잠자고 있다”⁶⁾고 하며, 월간 문화재⁷⁾에서도 체코의 프라하의 ‘국립미술관’과 ‘납스텍 박물관’에 520여점의 고미술품과 민속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고 했고, 1997년 3월 5일자 조선일보⁸⁾에 의하면 “페테르부르크의 박물관 3곳과 모스크바의 박물관에만도 3천여점에 달하는 우리 문화재가 확인되었다”고 하며, 본 연구를 통해서도 특히 미국의 경우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나 브루클린박물관에서 찾아낸 우리 복식들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해외박물관에는 기록으로 나타난 것보다 많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Ⅲ. 해외 박물관 소장 한국 복식문화재

5) 도표에 나타난 출처들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며, 1982년 통계는 1982년도 문화재관리국 통계를, 1994년 집계는 1994년도 외무부 집계를 의미하고, “#”표시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통계자료에 소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타낸 것임

6) 고미양, “고문서 반환 유례 없는 일”, 동아일보, 1993. 9. 22

7) 정수영, “우리나라의 문화재 현황 및 그 보존을 위한 활동과 방안”, 월간 문화재 136호, 1995. 11

8) “조선일보 77주년과 ‘문화유산의 해’ 특별컬럼”, 조선일보, 1997. 3. 5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발간한 5권의 「해외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⁹⁾와 여러 문헌 자료¹⁰⁾ 및 1994년 외무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집계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우리 복식문화재를 소장한 박물관을 선정한 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서신 왕래,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현지 조사가 가능했던 박물관을 중심으로 우리 복식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미국, 유럽, 아시아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것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지역의 한국 복식문화재

「미국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¹²⁾를 분석하고 1992년부터의 현지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헌에 의하면 미국 18개 도시 21개 박물관 및 미술관에 약 3400여점의 우리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¹³⁾ 고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외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브루클린박물관(Brooklyn Museum), 뉴와크박물관에서도 우리 복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장품으로는 삼국시대 장신구부터 20세기 복식류까지 다양하다. 의복류는 대부분 19세기~20

<표 4> 현황 조사한 박물관¹¹⁾

국가명	도시명	박물관명	내용	소장량 (점)	서신 (회)	현지 조사	인터뷰	사진 촬영	전시	비 고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70	2	3	1	2	#	한국실
		브루클린박물관		25	2	4	2	2	#	
	뉴저지	뉴와크박물관		20	2	15	2	3	유	
	피바디	피바디에섹스박물관		2000	2	2	1	1	유	
	워싱턴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300	1	2	전화	유	유	
네덜란드	암스텔담	국립박물관		(30)	1	1		1	#	한국실
덴마크	코펜하겐	국립박물관			1	1		1	유	
독일	뮌헨	민속학박물관			1	1		1	유	
영국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		90	2	1	1	1	유	한국실
프랑스	파리	국립기예박물관		70	1		전화		유	한국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민속학박물관			2	1		1		한국실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		70	2	2		2	유	한국실
		문화여자대학교 복식박물관*			1	1		1		
중국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		(90)	2	2		2	유	한국실
		민족문화궁*			1	1		1	유	
	북경	조선족박물관*			1	1		1	#	
	연변									

9)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미국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전게서
 , 「유럽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전게서
 , 「일본 소장 한국문화재-민예관련」, 전게서
 , 「일본 소장 ② 한국문화재」, 전게서
 , 「미국 소장 ② 한국문화재」, 전게서

10) 「미국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소장 100년전 한국 풍물 유길준과 개화의 꿈」,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일보사, 1994
 석주선, 「일본 문화여자대학 복식박물관 소장 덕혜옹주 유물소고」, 한국복식 9호, 단국대학교부설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1991

11) 사진촬영중 “#” 표시는 현지 담당자가 촬영해 보내 준 것이며, 전시 현황에서 “#” 표시는 우리 문화재를 전시한다는 의미이고, “유” 표시는 복식문화재도 포함되어 전시되었다는 것이며, 비고의 한국실은 단독 한국실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 것임

12) 한국국제문화협회, 「미국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전게서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미국 소장 ② 한국문화재」, 전게서

13) 한국국제문화협회, 「미국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상게서, p.502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미국 소장 ② 한국문화재」, 상게서, p.4

세기 초기의 복식으로, 이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 Smithsonian Institution), 미네소타대학박물관, 클리브랜드박물관 등에서는 내·외국인의 기증에 의하거나, 시카고미술관, 브루클린박물관, 피바디에섹스박물관(Peabody Essex Museum) 등에서와 같이 박물관 담당자에 의해 구입한 것도 있었다. 그 중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과 피바디에섹스박물관에는 다량의 우리 복식이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 또한 높고, 피바디에섹스박물관은 해외 박물관 중 최대 규모의 한국 민속 컬렉션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의 재미유학생인 유길준의 기증품도 소장하고 있었다. 특히 피바디에섹스박물관은 1994년 200주년을 맞아 한국 독립전시실을 만들고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도 가졌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경우 문헌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원삼을 Woman's Bridal Kimono라고 명명한 것 등 명칭상의 오기가 발견되었다. 피바디에섹스박물관 명칭이 한국국제문화협회에는 세일럼피바디(Peabody Museum of Salem)로 되어 있으나 본인의 현지 조사와 1994년에 있었던 유길준 특별전을 볼 때 피바디에섹스박물관(Peabody Essex Museum)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된 미국 지역내 박물관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브루클린박물관, 뉴저지의 뉴와크박물관, 매사추세츠의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이며 그들의 소장품중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메트로폴리탄 의상연구소에 소장된 원삼으로 레위손이 기증한 것인데, 한국인 무용가 기세조(Saisho Ki)씨의 것이라 하며 제작 연도는 19

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것이다.¹⁴⁾ 연두색 속고사에 홍색·청색·노란색·분홍색·초록색의 색동과 한삼이 달려 있다. 이 박물관의 1950년 이전의 목록에서는 녹원삼을 Korean Bridal's Kimono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우리 복식인 원삼을 일본 복식인 Kimono로 표기하였으므로 본인은 Korean Bridal's Robe(Wonsam)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 2]는 브루클린박물관에 소장된 동달이로 옷길이에 걸린 채 보관되어 소매와 길이 닿는 부분에 마찰로 인한 손상이 있다. 이는 한국복식 특징상 평면으로 접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평면으로 보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도 3]은 뉴와크박물관에 소장된 감옷인데 기록카드에는 한국의 감옷으로 기록되었으나¹⁵⁾ 소매 형태가 전형적인 중국 청대의 것이 분명하여 본인이 1992년 인턴으로 있을 당시 중국 것으로 정정했다.

[도 4]는 피바디에섹스박물관에 소장된 한국의 단속곳이며 특히 이 박물관의 한국 소장품들은 현대식 모빌 수장고에 각각 acid-free 종이에 싸여 폴리에스테일 비닐 백에 넣어 보관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지역 내의 한국 문화재 소장 박물관중 가장 우수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유럽 지역의 한국 복식문화재

「유럽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¹⁶⁾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1996년 6월 이후 서신과 전화 연락이 가능했던 박물관들을 1996년 7월부터 8월까지의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8개국 27개 박물관에 우리 문화재인 삼국시대 장신구부터 조선시대의 복식류까지 소장되

14)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List of Korean Costum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5) The Newark Museum, "List of Korean Collection", the Newark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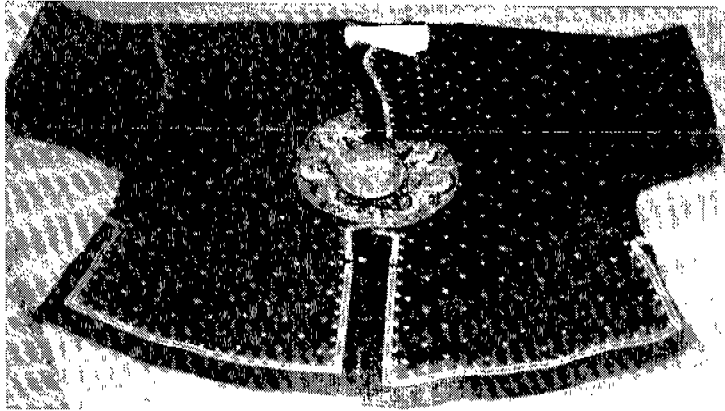
16)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유럽 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전게서



<도 1> 원삼,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의상연구소 소장), 조사일 : 1993. 3.



<도 2> 동달이,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조사일 : 1993. 4.



<도 3> 갑옷, (뉴와크박물관 소장), 조사일 : 1992. 8.



<도 4> 단속곳, (피바디 에섹스박물관 소장), 조사일 : 199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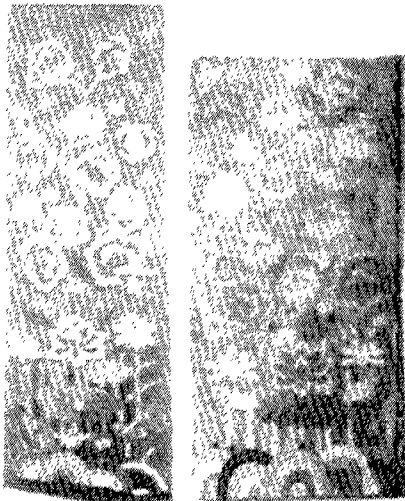
어 있는데 이 문헌 외에 정확한 소장량은 알 수 없었다. 그 외에 독일 뮌헨의 Stadt Museum, 벨기에 브뤼셀 시립박물관, 체코 프라하의 국립박물관 등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므로 더 많은 우리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유럽 내의 우리 컬렉션의 의복은 대부분 19세기~20세기 초기의 복식으로, 구한말에 외교관, 사업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구입하였거나, 기증 받은 것들이며 최근에는 한국복식 디자이너(허동화, 이영희)에 의해 기증되기도 했다.

또한 문헌 자료¹⁷⁾의 도판에서는 복식 명칭상의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 소장 목록은 삽화가 없어 정확한 고유 명칭을 기재하기는 어려웠다. 도판만 분석해 보면 갑옷류를 라이덴 국립민속박물관, 베를린 시립박물관, 브레멘 해외박물관, 오스트리아 민속학박물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었으며, 국립기예박물관명은 본 연구자의 현지 조사와 문헌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국립기예박물관(Musé National des Asiatiques Guimet)으로 칭해져야 한다고 본다.

유럽지역내 연구 대상이 된 박물관으로는 영국의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 V & A), 프랑스의 국립기예박물관, 덴마크의 국립박물관(National Museet), 오스트리아의 민속학박물관인 Museum Fur Volkerkunde 등이며 그들 소장품중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 5]는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에 소장된 활옷의 패널인데 이곳의 활옷들은 모두 해체되어 각 패널별로 전시되어 있어 해체된 연유와 재 복원 여부가 대단히 궁금하며 계속적인 유대 관계를 지속하여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 6]은 오스트리아 민속학박물관에 전시된 혼례복으로 신랑·신부의 마네킹은 녹원삼과 자색관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부 혼례복을 재료면에서 보면, 원삼은 紗로, 치마는 緞으로 만든 것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는 사계절마다 착용하는 옷감이 달랐으므로 재조정하여 같은 재료의 의복들로 다시 착장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된다.



<도 5> 활옷 패널,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 소장), 조사일 : 1996. 7.



<도 6> 혼례복, (오스트리아 민속학박물관 전시), 조사일 : 1996. 8.

17)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유럽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전개서

3. 아시아 지역의 한국 복식문화재

(1) 중 국

Korean Times지에 게재된 내용¹⁸⁾을 기초로 1차는 1996년 12월 28일부터 1997년 1월 1일까지, 2차는 1997년 3월의 현지답사를 통해 얻은 결과, 중국 북경의 민족문화궁과 연변 조선족 박물관에서 우리 복식 및 직물류가 소장 전시되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한국문화재인지 중국의 소수 민족 유물인지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며 본 연구에서는 현지의 우리 동포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으로 여겨지기를 원함에 따라 소수민족 복식으로 취급했다. 이외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에서도 직물류가 보이는데 이는 최근의 것으로 추정된다.

[도 7]은 연변의 조선족박물관에 전시된 혼례식 장면으로 원삼과 관복 소매에 붙어 있는 한삼은 잘못 붙여졌거나 북방적 풍습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

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겠다.

(2) 일본(日本, Japan)

「일본 소장 한국문화재」¹⁹⁾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1996년 9월 이후 서신과 현지답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의 <표 2>에 따르면 약 29637점의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소장처 만도 수십 군데가 된다. 그 중 문헌과 현지 조사를 실시한 동경 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 문화여자대학 복식박물관, 오사카의 국립민족학박물관(國立民族學博物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동경국립박물관에는 1990년 소장품 중 우리나라 영친왕, 영친왕비 및 왕손의 복식들을 반환하고도 아직도 수십 점의 복식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나 전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또한 동경 국립박물관의 경우 문헌에²⁰⁾ 연록색부문사저고리(軟綠色浮紋上衣)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의이며 황지쌍룡원



<도 7> 혼례복, (연변의 조선족박물관 전시), 조사일 : 1997. 3.

18) Korean Times, “일본에서 제시한 해외 소장 한국 문화재 목록”, 1993. 9. 29

19)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일본 소장 한국문화재 - 민예관편」, 전개서, 「일본 소장 ② 한국문화재」, 전개서

20)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일본 소장 ② 한국문화재」, 상계서, p.180-181 or 480

문사두루마기(黃地雙龍圓紋紗長衣)도 동달이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 오구라 컬렉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삼국시대의 금동관을 비롯한 여러 국보급 유물들이 있어 일제시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유물이 유출되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이 유물의 조속한 반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또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아시아관에는 우리나라 독립전시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의 테마별로 전시되어 있으며 혼례복, 일상복, 무복 및 아동복 등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다.²¹⁾

[도 8]은 덕혜옹주의 사진으로 구한말 당시 궁중에서 이용된 당의 형태를 짐작하는데 좋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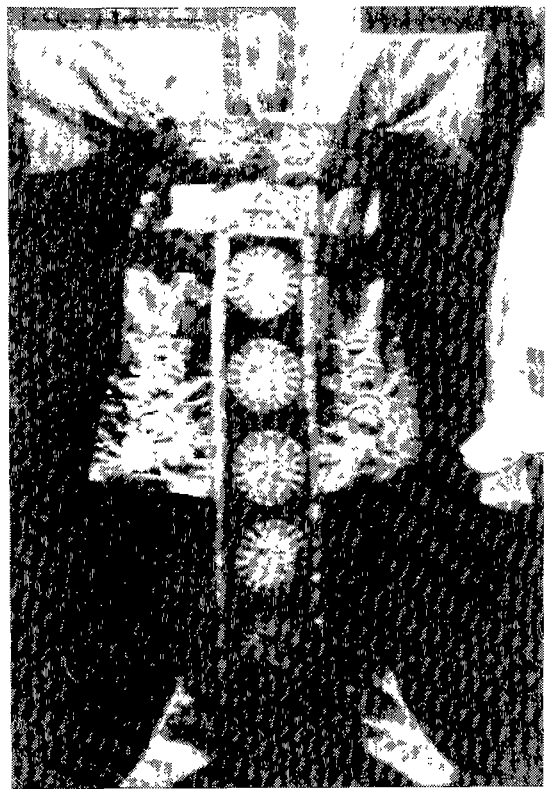
가 되며, 특히 문화여자대학 복식박물관에는 1956년(소화 31) 1월 기증된 덕혜옹주와 그녀의 딸 정혜의 유물 49점, 그 외의 민간유물중 복식 81점, 관류 8점, 신발류 8점, 기타류 27점 등 125점이 소장되어 있다.

[도 9]는 부복으로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부복 앞에 땀기를 댄 것은 잘못 부착된 것으로, 이는 한국에서 땀기를 착용할 때는 머리 뒷부분에 달았으므로 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한국복식을 소장한 해외박물관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도 8> 덕혜옹주의 사진, Haute, 1997. 1., p.39



<도 9> 무복,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시), 조사일 : 1996. 10.

21) 1980년대 복원품, 유희경, 박경자 선생 기증

<표 5> 한국 복식 문화재를 소장한 해외 박물관 현황

국가명	도시명	박물관명	내용	총 소장량	복식 소장량	대표적인 복식 관련 소장품명
네덜란드	라이덴 암스텔담	국립민속박물관		미상	4	갑주, 투구, 전립, 베킷모, 민속품
		국립민속박물관		(20)	14	수월관음도, 신장상
덴마크	코펜하겐	국립박물관		1400	14	초상화, 풍속화, 천하도
독일	베를린 뮌헨 브레멘 켈른 함부르크	시립박물관		300	18	투구, 전립, 금목걸이, 금귀걸이
		민속박물관		미상	미상	민속품
		해외박물관		240	30	두정갑, 투구, 금관, 학창의, 장옷, 나막신
		동아시아박물관		80	46	수월관음도, 남바위, 두루마기
		미술공예박물관		20	10	
민속박물관		2000	100	민속품		
미국	뉴저지 뉴욕	뉴욕박물관		100	20	사명대사진영, 탕화, 갑옷, 흉배 등
		메트로폴리탄박물관		500	150	원삼, 관복, 장옷, 어린이옷 등
	매사추세츠	브루클린박물관		100	20	금관조복, 장옷, 당의, 무복 등
		F.I.T. 박물관*		20	10	원삼, 관복 등
		보스턴박물관		200	10	귀걸이, 팔찌
	메릴랜드	피바디에섹스박물관		5000	2000	원삼, 금관조복, 철릭, 초립, 패랭이, 목화 등
		하버드대학교 포그박물관		250	5	궁중진찬도, 직물, 장신구
	미네소타	윌터즈박물관		150	20	귀걸이, 단추
	오하이오	미네소타대학교 박물관		5000	9	무산도
	워싱턴	클리브랜드박물관		364	10	관음보살도, 목걸이
		시에틀박물관		167	5	화조도, 지고리, 바지
	워싱턴DC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3000	500	갑주, 투구, 비옷, 어린이옷, 갓, 태극기 등
		스미소니언 프리어박물관		300	50	귀걸이, 어린이옷
		텍스타일 박물관*		미상	3	흉배
	인디애나	인디애나폴리스박물관		158	2	모자, 머리핀
		일리노이	시카고미술관		164	10
	캘리포니아	펠드자연사박물관		미상	20	저고리, 갓, 한복
		로버트무어 컬렉션		600	15	초상화, 탕화, 남바위, 누비저고리 등
		하와이	비숍박물관		160	95
호놀룰루미술관		741	40	지장시왕도, 갓, 장신구		
벨기에	브뤼셀	시립박물관*		미상	미상	인형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60	17	화월잠, 귀걸이
영국	더햄 런던	더햄대학교 동양박물관		50	4	병풍, 산수도
		대영박물관		5000	28	초상화, 풍속도, 봉연선사도, 한복 등
	리드 캠브리지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		1400	39	활옷패널, 금관조복, 어린이옷, 주머니 등
		시립박물관		23	23	치마, 저고리
		캠브리지대학 인류고고학박물관		200	45	민속품
스코틀랜드	헛쉴리엄 박물관		250	10	버클	
	국립박물관		미상	9	민속품	
오스트리아	비엔나	민속학박물관		720	100	색동숨저고리, 전복, 피갑, 재비부리신 등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		2880	70	동달이, 당의, 금관, 금대, 금장신구 등
		문화여자대학 복식박물관*		125	99	당의, 치마 등
	오사카	일본 민예관*		1500	미상	완초신발, 가족신
프랑스	파리	국립민족학박물관*		미상	90	환옷, 관복, 무복 등
		국립기예박물관		38	5	아미타여태상, 병풍, 란지, 귀걸이
체코	프라하	국립박물관		미상	미상	민속품

IV. 복식문화재의 보존과학

보존 과학의 정의, 보존환경, 보관 관리 및 보존 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보존처리를 중심으로 서구의 문헌²²⁾과 F.I.T. 교육을 통한 실례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보존 과학의 정의, 보존환경 및 보관 관리

보존 과학은 수집품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며 최근에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 복구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유물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박물관의 주위 환경을 조절하는 예방적 차원으로 확대 연구되어지고 있다.

복식문화재는 재질상의 취약점 때문에 다른 문

화재에 비해 다루기 어려우며, 오염물 부착에 의한 오염, 재질의 경화 및 결실 그리고 염료의 변퇴색(變退色) 등을 통해 손상된 부위는 원형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적 보존처리가 어떤 문화재보다도 더 필요함²³⁾이 주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복식 박물관이나 문화재 연구소에서 신경 쓰는 보관 환경 요인에는 온도, 습도, 광선, 먼지를 비롯한 공기 오염물 특히, 산소, 곤충, 미생물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복식문화재 손상의 주요인이 되는 것은 온·습도, 광선, 곤충 및 미생물이며 이를 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일본과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과 최신의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 나라에 맞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표 6> 국내·외 섬유문화재의 보관 환경 비교²⁴⁾

주제 \ 내용	온도	상대습도	광선(조도)	충해방지법	비고
미국	21±3℃ 70±5°F	50±5%	10ft	급속냉동법, 훈증법	
영국	13±14℃ 55±57°F	50±60%	50Lux	급속냉동법	
일본	20℃	60%	75~150Lux	감압 훈증	전통법 사용
중국	16~18℃	50~55%	U.V. Filtering	고온 및 감마선 살충법	전통법 사용
한국 박물관	20℃	50±5%	10~15 ft(U.V. Filtering)	급속냉동법, 마이크로웨이브 훈증법	
안희균	16~18℃	45~65%			
이상주	15℃ 정도	55~60%	50 Lux이하(U.V. Filtering)		
최광남	20±2℃	45~65%	50~100 Lux	냉동법	

22) Finsh, Karen, Putnam Greta, the Care of Preservation of Textiles, London : B. T. Batsford Ltd, 1991
 Flury-Lemberg, Mechthild, Textile Conservation and Research, Schriften der Abegg-Stiftung Bern
 Landi, Sheila,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Oxford : Butterworth Heinemann Ltd, 1992
 Mailand, Harold F., Considerations for the Care of Textiles and Costumes, Indianapolis Museum of Art, 1980

23) 한성희, 이규식, "중요민속자료의 보존처리", 보존과학연구, 1993. 12., p.120

24) 자료들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며, 박물관에서는 절대습도가 온도변화에 따라 흡습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상대습도를 사용함(박종옥, "복식유물 보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54)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장품 관리에는 등록, 기록 보관, 출납 관리, 정기 점검은 물론 완벽한 수장고를 완비하여야 한다.²⁵⁾ 수장고는 박물관의 자료를 보관관리하는 곳으로 지하실에 설치하면 습기 조절이 어렵고 장미나 홍수에 침수될 위험이 있으며 높은 층에 위치하면 유물의 반입과 출고가 곤란하고, 맨 위층일 경우는 여름철 일조외 영향으로 온도 상승이 초래되기 쉬우며 증량물의 보관시에는 내압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²⁶⁾ 따라서 수장고는 가능한 지상 1·2층에 위치하고 장래의 확장을 대비하여 충분한 증축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2. 보존처리

보존처리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유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보존처리 방법을 찾고자 보존처리 전에 유물의 성분 분석은 물론 오염 물질의 성분까지도 파악하는 보존전 처리이며, 두번째는 문화재를 보다 안전한 상태로 후세에 남기기 위한 수선 및 세탁 등과 같은 본처리 과정이고, 세번째는 보존처리가 끝난 후부터 관리하는 보존후 과정을 말한다. 이 중 본장에서는 본처리 과정중 물리적 수선 과정과 물리·화학적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물리적 수선 과정

세탁과정 중 섬유가 물이나 다른 용액에 담겨지면 그 강도가 약해지므로 터졌거나 해진 곳이 있으면 수선 처리를 먼저한 후 세탁을 해야 손상 부위가 확대되지 않는다. 이때 이용되는 스티치는 우리 전통의 바느질법인 홈질, 박음질, 시침질 등과 서구에서 배운 8자 스티치(Figure 8 Stitch) 및 터크 스티치(Tacking Stitch)라는 특수 바느

질법을 혼용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8자 스티치는 미어진 직물을 수선할 때 이용되며 터크 스티치는 구멍이나 유실된 부분을 보수할 때 이상적이다. 바느질할 때는 수를 놓는 듯하게 하기보다는 손이 될 가면서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넓은 부위가 헤어졌거나 유실되었을 때는 원 유물과 유사한 재질의 섬유를 같은 색이 되도록 염색하여 바탕 천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유물은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 수세기 동안 보존될 것이므로 만약 합성섬유를 이용한다면 천연섬유는 모두 유실되고 합성섬유만이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물리·화학적 보존처리

복식 유물을 세척하는 방법은 크게 습식세탁(물세탁법)과 건식세탁(드라이크리닝법)으로 구분된다.

① 습식세탁

습식세탁의 주요 목적은 직물을 깨끗하고 중성이며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표면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그러나, Twist사의 구조로 된 직물중 특수 공정 직물과 극도로 나빠진 직물은 비전문가가 물세탁할 수 없다. 형광성 물질이나 표백제, 향수 및 유연제를 함유한 세제는 행귀도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고 섬유구조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복식문화재에는 이용하지 않은 것이 좋다.²⁷⁾

세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직물의 염색 견뢰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야 하며, 이때는 직물의 모든 색상 부위를 검사하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물세탁을 해서는 안된다.

부서지기 쉽거나 헤어진 직물들은 실크, 나일론 툴이나 파이버글라스 스크린으로 직물의 길이와 치수에 따라 샌드위치 형태의 지지물을 만드는데²⁸⁾

25) 李乃沃, 「문화재 다루기」, 열화당, 1996, pp.20~25

26) 김종담, “박물관 수집품의 보존”, 문화재 26호, 문화재 관리국, 1993, pp.293~296

27) Mailand, Harold F., 전게서, pp.8~9

28) 스크린 사이에 직물을 넣어 직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임, F.I.T.의 Conservation Lab 실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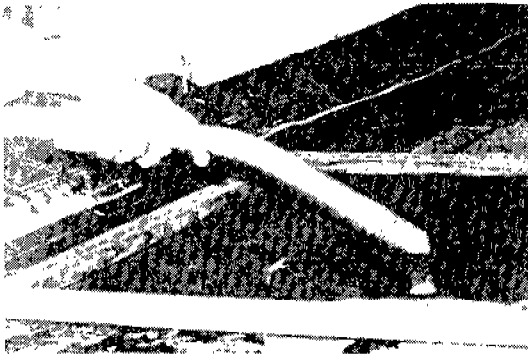
이때 스크린의 역할은 직물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한 줄여 주는 것이다.

세탁시 먼저 70~80°F의 세제액에 담그되 한시간 이상 담그면 안된다. 만일 직물에 지워지기 어려운 얼룩이 묻었을 때는 세제를 이용해 세탁을 하며 완전히 세탁될 때까지 반복해서 행구어야 한다.²⁹⁾ 또한 섬유에 물이 다량 침투되면 저항력이 약해지므로 직물을 휘젓지 말아야 하며 물세탁 기구는 전체 직물을 평평하게 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식물성 스펀지를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손으로 두들겨 비누 거품액이 고르게 침투되게 하고 행굼은 적어도 4번이상 비누 거품의 찌꺼기가 없을 때까지 해야 하며 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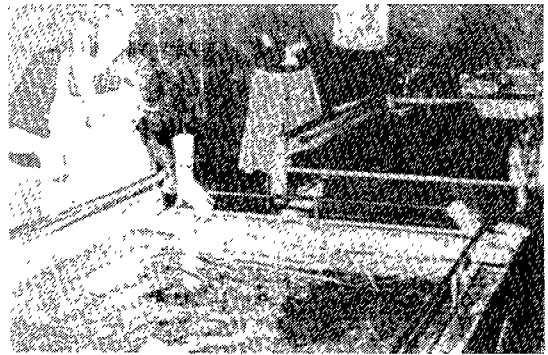
막 행굼 때는 pH가 중성 범위가 되어야 한다.

직물을 건조시킬 때는 깨끗하고 평평한 표면이나 스크린 장치를 공기가 잘 통하는 높은 곳에 놓고 하며, 형태와 치수가 원래대로 되게 한다. 불기를 제거할 때는 깨끗한 하얀 타올, 매트리스 패드, 시트감이나 모슬린을 가지고 얇전하게 눌러서 없애야 한다. 직물의 주름을 없앨 때는 유리나 스텐드 글라스 및 스며들지 않는 표면을 지닌 작고 평평한 조각을 직물 위에 놓아 형태를 만든다. 직물을 건조시킬 때는 반드시 자연 상태로 건조시켜야 하며 결코 뜨거운 다리미로 다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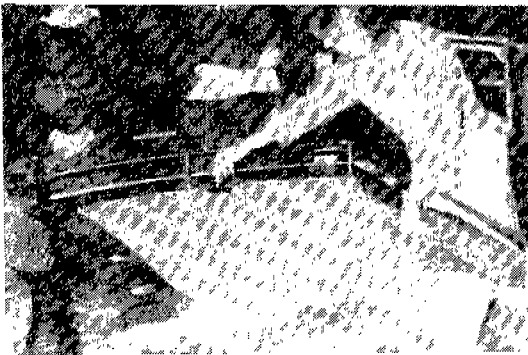
아래의 [도 10]은 습식세탁 과정을 순서별로 본 것³⁰⁾이다.



<도 10-1> 직물에 망을 대고 진공청소함



<도 10-2> 세탁조를 준비함



<도 10-3> 의복의 전면을 세탁함



<도 10-4> 의복의 전·후면을 교체함

29) Mailand Harold F., 전계서, pp.8~9

30) Landi, Sheila, 전계서, pp.82~87



〈도 10-5〉 폴리에스테를 색운 막대기를 어깨 사이에 끼움



〈도 10-6〉 옷걸이에 걸어 건조 시킴

② 건식세탁

건식세탁은 일반적으로 습식세탁보다 섬유 자체가 팽윤되거나 수축되지 않아 의복의 형태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으며 살균·살충의 효과가 있고 염색물을 안전하게 세탁할 수 있으며 건조가 빠르고 간편하다. 그러나 수용성 오염물이 잘 제거되지 않고 흰색 세탁류의 경우는 깨끗하게 세탁되지 않으며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와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³¹⁾

미국의 경우, 드라이클리닝은 단지 기름을 함유한 얼룩을 제거하는데만 사용하는데 이때도 전문 드라이클리너에 의해 손으로 세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업 유기용제를 남용하면 직물에 피해가 심해지며 깨끗한 유기용제만을 이용해야 한다. 흰색이나 옅은 색 직물은 유기용제가 다 빠지지 않으면 쉽게 색이 없어지므로 모든 염료의 검사를 요구한다.³²⁾ 일반적으로 20세기의 것이나 현대 및 튼튼한 직물에만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최근 들어 드라이클리닝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복식 유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구김이나 가열 온도 등은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 같다.

V. 해외 박물관 소장 한국 복식문화재의 제문제

한국 복식문화재의 현황을 연구하면서 얻은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면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문화산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산업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므로 문화재 관리기관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문화 특히 복식에 대한 홍보 및 문화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실례로 정보 교환은 물론 현황 파악 및 현지에 전문 학예관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복식의 명칭 및 착장법의 오류에 대한 각 박물관의 자료와 문헌을 통해 보면 원삼이 기모노로 되어 있거나 당의가 연록색부문사저고리로 되어 있는 등 명칭상의 오기가 많았다. 또한 우리 것이 중국 것으로 되어 있거나 중국 것이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착장법이 잘못되어 있는 등

31) 이선재, 「의류학 개론」, 수학사, pp.297~230

32) Mailand, Horold F., 전계서, pp.9~10

전반적으로 우리 복식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고유 명칭 및 착장법 등을 해외에 소개하는 한국 복식 문화에 대한 책자의 발간과 배부가 시급하다.

셋째, 전시 상황에 대하여, 해외에 소장된 한국 복식문화재는 대체로 종합박물관 혹은 민속박물관의 독립전시실이나 아시아 전시실의 일부분에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의 규모와 수준이 중국이나 일본의 1/3정도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전시 방법, 전시 내용 및 진열방법 등에도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한국 복식문화재의 관리 상태는 박물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며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보관환경에 대한 규준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학적인 방법과 함께 우리 전통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 복식에 맞는 보존처리법이 확립되었으면 한다. 실례로 수선시에는 우리 전통 바느질법인 흙질, 박음질, 시침질과 함께 서구의 보존처리 바느질법인 8자 스티치 및 터크 스티치 등을 혼용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해외의 박물관에 소장된 우리 복식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문헌 자료와 사진 왕래, 학예관 및 담당자와의 인터뷰, 현지 답사를 통해 해외에 한국복식을 소장한 40여개 박물관중 13개 박물관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존 처리법들 중 한국의 실정에 맞는 보존 처리법을 찾고자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해외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³³⁾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복식문화재를 메트로폴리탄(135), 브루클린(20), 뉴와크(15),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100점)에서 많은 량의 복식류를 찾을 수 있었다. 해외에 소장된 복식문화재에는 삼국시대 장신구부터 20세기 복식류까지 다양하게 소장되어 있으나 의복류는 대부분 19세기~20세기 초기의 복식으로 일상복은 물론 혼례복과 갑옷류를 많이 소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소장품들은 구한말 당시의 내·외국인인 외교관, 학자, 사업가, 상인들에 위한 기증품들과 골동품상이나 박물관 담당자에 의해 현지에서 구입한 것이며, 최근에는 한국복식 디자이너 및 한국 공관에 의해 기증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종합박물관 혹은 민속박물관에 독립전시실이나 아시아 전시실의 일부분에 전시되어 있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일본 박물관에는 한국 단독 전시실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시실의 규모와 수준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헌 자료³⁴⁾에 따르면 복식 명칭상의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경우 문헌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우리의 원삼을 Korean Bridal's Kimono라고 명명한 것 등 명칭상의 오기가 있었다. 오스트리아 민속학박물관에서는 야암을 굴레로, 동경 국립박물관의 경우 당의를 연록색부문사저고리(軟綠色浮紋上衣)로, 동태이를 황지쌍룡원문사두루마기(黃地雙龍圓紋紗長衣)로 오기한 것도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에서는 남자바지의

33)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미국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전게서
 , 「유럽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전게서
 , 「일본 소장 한국문화재 - 민예관련」, 전게서
 , 「일본 소장 ② 한국문화재」, 전게서
 , 「미국 소장 ② 한국문화재」, 전게서

대님이 잘못 매여 있어 이를 수정하였다.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의 무복에 부착된 당기와 연변 조선족박물관의 혼례복에 부착된 한삼 등은 잘못 부착되어 있었다. 또한 뉴와크박물관에는 중국 갑옷이 우리 것으로, 고종의 사진이 중국 것으로 되어 있어 정정했다.

보존처리 과정중 수선의 경우는 액체 속에서 섬유 자체의 성질이 저하되므로 세탁 전에 하는 것이 손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선에 쓰이는 바느질법은 우리나라 전통법과 서구의 8자 스티치, 터크 스티치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보존처리 특히, 세탁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복식류는 전시 전에 먼지나 지푸라기 제거를 위한 진공 세탁을 위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식과 습식세탁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제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과 세탁 전에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보존 처리법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의 범위가 너무 넓고 방대하여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아래 본 연구를 선행으로 더 많은 우리 복식문화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서적>

- 과학기술처,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1972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발전을 위한 세미나」, 국립중앙박물관, 1976
- _____,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한 해외박물관·미술관조사 보고서」, 국립 중앙박물관, 문화체육부, 1994
-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 심구당, 1992

-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文化財 大觀, 重要民俗資料 下」,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1986
- 석주선, 「衣」, 단국대학교 부설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7
-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도서출판 돌베개, 1996
-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93
- 이선재, 「의류학 개론」, 수학사, 1994
- 이용조 역, Evans, John G, 「환경고고학」, 도서출판 세화, 1991
- 이종환 외,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과 방법」, 신구미디어, 1994
- 鄭志海, 屈志靜, 「북경 자금성」, 今日中國出版社, 1995
- 정태환외,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 지식산업사, 1997
- 崔光南, 「文化財의 科學的 保存」, 대원사, 1994
- 최기선,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서문당, 1987
- 최몽룡, 「한국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학연문화사, 1997
- 한국국제문화협회, 「미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 한국국제문화협회, 1989
- 한국국제교류재단, 「유럽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 한국국제교류재단, 1991
- _____, 「일본 소장 민예관」편, 서울 : 한국국제교류재단, 1993
- _____, 「일본 소장 ② 한국문화재」, 서울 : 한국국제교류재단, 1996
- _____, 「미국 소장 ② 한국문화재」, 서울 : 한국국제교류재단, 1996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재 및 전통문화 관리기능 강화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2
- _____, 「문화예술행정요원의 양성과 확보 방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 _____, 「한국의

- 국제문화협력 증진방안」, 한국문화예술원 문화발전 연구소, 1989
- _____, 「문화예술 전문기술인 자격인증제도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2
- 한국 IBM, 「한국 전통생활의 미」, 한국 IBM, 1992
 - 한국일보사, 「세계의 박물관」, 한국일보사
 - 大塚和義, 「新版 博物館學 II」, 日本放送出版協會, 1995
 - 小川安朗, 「服飾變遷の 原則」, 東京: 文化出版社, 1979
 - 玉光鈞, 「中國博物館學基礎」, 上海古籍出版社, 1995
 - 民族文化宮殿觀館, 「民族學博物館學散考」,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4
 - Finsh, Karen, Putnam Greta, the Care of Preservation of Textiles, London : B.T. Batsford Std, 1991
 - Flury-Lemberg, Mechthild, Textile Conservation and Research, Schriften der Abegg-Stiftung Bern
 - H.W. Janson, History of Art, New York : Harry N. Abram Inc., 1991
 - Landi, Sheila, the Textiles Conservator's Manual, Oxford : Butterworth Heinmann Std, 1992
 - Lord, Gail Dexter, Lord, Barry,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 London : HMSO, 1991
 - Mailand, Harold F., Considerations for the Care of Textiles and Costumes, Indianapolis Museum of Art, 1980
 - Victoria and Albert Museum, Korean Art and Design, Victoria and Albert Museum, 1992
 - 강대일, “일본 보존과학의 현황”, 문화재 27호, 문화재 관리국, 1994
 - 김동욱, “壬亂前後의 出土服飾”,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2
 - 김유선,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하여”, 문화재 제5호, 문화재 관리국, 1972
 - 金銀娥, “Dry Cleaning에서 水溶性 汚染과 固形 汚染의 除去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1
 - 김종담, “박물관학”, 문화재 24호, 문화재 관리국, 1991
 - _____, “박물관 수집품의 보존”, 문화재 26호, 문화재 관리국, 1993
 - 登石健三, 金炳虎, 이영근 역, “文化財 保存을 위한 溫濕度の 基準”, 문화재 제5호, 문화재 관리국, 1972
 - 최덕경, “문화재의 보호와 대책에 대한 고찰”, 문화재 26, 문화재 관리국, 1993
 - 朴鍾玉, “服飾遺物 保存에 關한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신상욱, “창의성개발을 위한 복식사교수방법에 관한 연구”, 이춘계교수 정년퇴임논문집 간행위원회, 1996
 - 安憲均, “紙類 및 纖維質 遺物の 科學的 保存”, 고문화 22, 대학박물관협회, 1983
 - _____,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遺衣 燻蒸처리”, 충북대 박물관, 1983
 - 오세정, “문화재보호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윤은재, “해외에 소장된 우리나라 복식의 현황 연구 I”, 복식 23, 한국복식학회, 1993
 - 李相洙, “文化財 科學的 保存處理의 實際”, 고문화 22, 대학박물관협회, 1983
 - 이종철, “서구의 한국문화재 전시와 구미 민속 박물관 소고”, 문화재 13, 문화재 관리국, 1980
 - 정재훈, “문화재 보존의 기본 방향”, 문화재 17, 문화재 관리국, 1984

- 정태진, “문화재 보존 관리의 정책 방향”, 문화재 22호, 문화재 관리국, 1989
- 조효순, “조선후기복식의 품속사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최광남, “박물관의 보존 조건”, 고문화 제 28, 29, 대학박물관협회, 1986
- 최종고, “문화국가와 문화재 보호법 및 국제법적 고찰”, 문화재 23호, 문화재 관리국, 1990
- 河孝吉, “民俗博物館의 課題와 方向”, 한국복식 2,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84
- 한성희, 이규식, “중요민속자료(복식)의 보존처리”, 보존과학연구, 1993. 12.
- Morra, Marisa, “Koren Costum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석사학위논문, 1985
- Yun, Un-Jae, “A Survey of Korean Costumes in Metropolitan Area Museum Collection and a Preliminary Study of Some Unexplored Aspects of Korean Costume”, F.I.T. 석사학위 논문(Master Thesis), 1994. 2.

〈정기 간행물 및 자료〉

- 각 박물관 수장 목록 및 전문 학예관 편지
- 고미양, “고문서 반환 유례 없는 일”, 동아일보, 1993. 9
- 김영환, “1900년 파리, 1902년 하노이 박람회 ‘한국관’ 사진 발굴”, 한국일보, 1993. 10. 26
- 오명, “시키고 엑스포 참가 전시품 특별전”,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1993
- 정수영, “우리나라의 문화재 현황 및 그 보존을 위한 활동과 방안”, 월간 문화재 136호, 1995. 11.
- “조선일보 77주년과 ‘문화유산의 해’ 특별컬럼”, 조선일보, 1997. 3. 5
- Korean Herald, “the Olympics led to a Changed Image of Korea”, 1993. 9. 25
- Korean Times, 1993. 9.
- Haute, 1991. 1.

ABSTRACT

A Study of Korean Costume in the Collection of Overseas Museum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ituation of Korean costume properties in the collection of overseas museums was investigated through correspondence, interviews with their curators and persons in charge and survey. As results were made about the situation of museum science (conservation) and practical utilization of costume properties.

So, the study result were drawn as follows :

Korean costume properties unexplained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could be found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of New York(135 pieces), the Brooklyn Museum of New York(20 pieces), the Newark Museum of New Jersey(15 pieces), and the Victoria Albert Museum of London(100 pieces). Korean costume properties in the collection of overseas museums mostly fall under the rang of period between the 19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and are classified into everyday clothing, wedding costume and armors for the most part.

In 1900s, museum in several countries began to collected Korean cultural properties through foreign missionaries or diplomats as well as merchants or travellers in who bought Korean objects. Recently, scholars, traditional Korean costume designers and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s in overseas have donated our Korean costume to many foreign museums.

Korean costume properties were largely on display in the dependent display of folklore

museums or in a part of exhibition gallery for Asian culture and there were the separate exhibition rooms in museum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Denmark, Austr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 But the size and level of display room for Korean cultural properties is one third as large as that for Chinese or Japanese cultural properties.

It wa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 in the collection of overseas museums was largely recorded only as general items rather than given their proper names. The typical example of misnaming included bridal's Kimono for *Wonsam*(원삼)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Yeonroksaek-bumunsajeokori* for *Dangeui*(당의) and *Jissan-gryongwonmunsadurumagi* for *Dongdali*(동달이) in the Okura collection of the Tokyo National Museum, and so on.

And the Victoria Albert Museum modified the way of wearing *Daenim*(대님) and the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in Osaka seemed to misplace the ornament of *Deanggi*(댕기) on *Mubok*(무복) and Josunjuk(조선족 : Chinese-Korean) Museum also misplace *Hansam*(한삼). On the one hand, the Newark Museum of New Jersey mixed Chinese armor with the Korean one and the Photograph of King *Kojong*(고종) with Chinese one. It is corrected to publish and disseminate the book concerning Korean costume in order to inform

foreign museums of the proper names and wearing method of our traditional costume.

The repair of costume before cleaning in the process of conservation treatment can prevent damage likely to occur as the properties of fiber itself are weakened in liquid. It is recommended that western 8-figure stitch and tacking stitch is added to Korean traditional stitching method.

Museums in the U.S.A. and the U.K. are concerned about the aftermath of cleaning itself, specially conservation treatment may exert on remains and predominantly use the vacuuming method to remove dust or bits of straw before the exhibition beings. But-in case of Korea, the dry cleaning and wet cleaning method are used according to the nature and state of a sample costume. This comprehensive cleaning method is gradually developing scientifically but it is expected that those concerned will make a chemical analysis of the solvent to be used and also the more precise test of costume properties will be conducted before cleaning them.

A partial study was made here because the scope of study was too broad and vast. It is expected that more studies will be conducted concerning our costume culture under the long-term plan and active support at the government level.